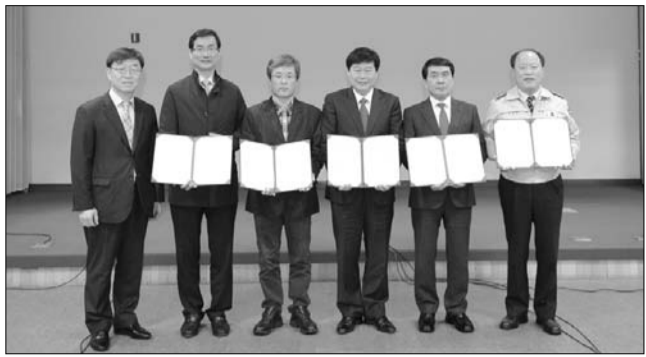


주민 고충 해결 발로 뛰는 완주군

전주-순천도로 소음피해 현장 조정회의... 방음벽 등 설치키로

완주군이 지역주민 고충 민원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는 현장 행정에 나섰다.

완주군은 지난 18일 구이면사무소에서 박창수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박성일 완주군수, 이승길 완주경찰서장, 김상범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주민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도 27호선 전주-순천간 구간 중 예술인 마을 앞 도로를 주행하는 과속차량으로 인한 소음피해와 관련한 고충민원의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2015년 12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해 완주군은 건설교통과장을 중심으로 민원해결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전주국토사무소 등 관계 전문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18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조정·합의 안에 따르면 완주군은 예술인 마을 주민들의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소음환경기준치 이하로 줄어 들도록 흡음형 방음벽 설치, 도로구간의 제한속도, 경음기 사용금지 등을 표시하는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통해 소음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완주=이중복 기자



황정수 무주군수는 17~18일 관내 주요 사업장을 돌며 사업추진 상황과 안전조치 여부 등을 살폈다.

“사업추진 만전·공정안전 최선”

황정수 무주군수, 현장행정

황정수 무주군수는 지난 17~18일 관내 주요 사업장을 돌며 사업추진 상황과 안전조치 여부 등을 살폈다.

이날 점검은 해방기를 맞아 진행된 것으로 17일은 무주읍 오산~당산 간 도로개설현장과 산림생태문화단지, 18일에는 무풍면 지성리 울릉정 정비사업장과 실천면 삼거리 구천동 하수처리시설 개량 현장을 방문했다.

황 군수는 공사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군 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이 민원 추진에 완벽을 기하고 공정 안전 역시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날씨가 풀리면서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마음을 다잡아 맑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주읍 오산~당산 간 도로개설은 6월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2공구

0.53km 구간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2016)은 올해 공사 마무리를 위한 토목공사와 건축, 조경, 전기 공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무풍 울릉정 정비사업은 재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내년에 완공을 목표로 저류지 확보와 교량, 사방벽, 친수시설 등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방류 수질개선과 운영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구천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은 올해 완료될 예정으로 고도처리 및 총인처리시설 개량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외에, 해방기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은 오는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황 군수는 당일 안전면 외당면 정비사업장과 실천면 과목곶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무주=전문기자

무주군, 산림자원 특화 주력

묘목 지역생산 우선 농가 소득 기대

올해의 관광도시 무주군이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 실현의 기반을 다지고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이자 세계 태권도 성지에 걸 맞는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조림사업 추진계획을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군은 조림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형과 기후 등 지역의 특성에 딱 맞는 공익조림수종을 선발하는 한편, 조림 묘목 역시 지역생산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군은 올 한 해 240ha규모에서 조림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봄에는 우선 백합과 노박, 낙엽송 등 경계수와 산림재해방지를 위한 소나무, 그리고 큰나무 공익 조림을 위한 편백, 자작나무, 고로쇠와 솟나무 등을 식재할 예정이다.



군 산림조성 담당 김승준은 “현재 조성 중인 무주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에 힐링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등 올해는 산림자원을 차별화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더불어 큰 나무 공익조림을 위한 묘목 농가를 육성해 준도 받고 나무도 심는 조림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기자

진안군, 우량한우 송아지 생산

농협 암소개량센터와 연계 수정란이식 시범사업 성공

진안군은 지난 18일 첨단기술을 이용한 우량한우 송아지 생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군은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와 함께 우수 축산물 생산을 위해 추진한 우량한우 수정란이식 시범사업의 결과물인 송아지가 동행면 소재 한우사육 농가에서 첫 탄생했다.

이번에 태어난 송아지는 분만에 정 중에 있는 우량한우 송아지 16마리 중 2마리다. 이 송아지는 지난해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번식우를 선발해 인위적으로 발정



동기화를 유도한 후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의 암소개량센터에서 생산된 고능력 한우 수정란을 이식한 결과물이다.

군은 이번 우량한우수정란이식 사업의 성공이 한우개량 사업의 안정적 추진 등 고능력 한우사육 기반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도 군은 사업비 1500만원을

확보해 수란우 40두를 선발해 한우개량사업소 암소개량센터에서 생산한 한우 수정란을 이식할 계획이며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된 송아지의 개체별 관리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가족개량인공수정을 이용해 수컷의 형질만 이용 개량해 왔지만 앞으로는 수정란이식 기술을 통해 암·수 전체형질을 동시에 개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조공 계통출하 농산물 운송비 지원

진안군은 진안고원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통합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농산물 규모화를 위해 통합마케팅 조직인 진안하이산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공)을 통해 계통출

하 하는 농산물에 대해 운송비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단순 출하권을 위임한 농산물에 대해 운송비를 지원해 78%의 총취급액 성장률을 달성했다.

이를 통해 전라북도 산지유통 구조 개선 실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지역 특산물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조공은 군의 통합마케팅 조직 출하

권 위임 농산물 운송비 지원과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의 사업비 증액을 바탕으로 올해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조공에서 2017년까지 추진하는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이 만료되면 공동선별 품목에 대해서도 운송비를 지원해 더 많은 농가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 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주말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박산입과
063-430-2951

국립공원

장수군, 내년도 국비확보 총력

김윤섭 장수부군수는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의 주요 부처를 방문해 내년도 장수군 국가예산 신청사업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김 부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 장수군의 지역현황을 설명한 뒤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농업여건 개선을 위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과 농산어촌 개발사업 등이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거듭 요청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장수~임실간 국도 건설과 장수~장계간 국도개량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2017년 사업의 설계비 반영 및 사업추진을 요구했다.

장수군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이날 중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국가기준점 일제조사

진안군은 지난 18일 측량성과의 정확도를 높이고 토지 경계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 기준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오는 10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가 기준점은 국토관리, 지도제작, GIS 구축 및 각종 건설공사 등의 정확한 측량자료로 제공되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물이다.

이에 군은 일제조사계획을 수립해 조사반을 편성하고 각 읍·면별로 현지조사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한 계획이며, 결실·파손된 기준점 표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 정비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대상은 모든 측량의 기준이 되는 삼각점 102점 수준측량에 의해 해발고도를 구할 때 기준이 되는 수준점 60점,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본측량에 의해 결정된 지리좌표를 표시한 통합기준점 8점 등 총 170점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고객체감도 조사 홍보

장수군은 2016년 국정시책 합동평가와 관련해 실시하고 있는 ‘고객체감도 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군민 홍보에 나섰다.

다행히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리서치 전문 조사기관에서 3월 2일부터 4월 29일까지 두 달간 20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복지재정 효율화, 일자리 창출, 재난안전 및 감염병 대응, 민원서비스 만족도 등 국정시책 4개 분야에 대해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설문 조사를 통해 이뤄진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경찰 - 모범운전자회 112허위신고 근절등 협약

무주경찰서(서장 한도연)는 지난 18일 112 허위(거짓)신고 근절을 위해 무주군 모범운전자회와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한도연 서장과 김강근 모범운전자 회장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112허위신고 근절 홍보활동과 실종자 자살위험자 발견 및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한 지역차안 확보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무주시는 협약 이후, 허위신고 근절 일환으로 “112허위신고 내 가족의 안전이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차량용 팸플릿을 자체 제작 개인택시 등 모범운전자 차량 25대에 부착, 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112허위신고로 적발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6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되며, 상습 신고자에 대해서는 위계에의 한공무집행 방해죄로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사안에 따라 민사소송도 병행하도록 하여 무관용의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무주=전문기자